수행의 일상화와 수행자의 구도

〈求道〉

현불논단



금해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월의 산사(山寺)는 오색 연등으로 화려하게 물들고 있다. 2600여 년 전 룸비니 동산에서 울려 퍼진 아기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은 단순히 한 성인의 탄생을 알리는 고고성(呱呱聲)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엄의 극치이자, 출가와 수행을 거쳐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자의 삶을 상징하는 선언이다. 또한 수행을 통해 누구나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최근 젊은 층과 일반인을 중심으로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불교의 선(禪) 수행이 사찰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확산하는 현상은 대단히 놀랍다. 과거 불교사가 복잡한 논리를 우선하는 학파 중심의 시대나, 기복과 기도를 강조하던 신앙의 시대를 거쳐왔다면, 이제는 대중이 직접 '수행'의 주체가 되는 시대에 있다.

그동안 참선은 수행 전문가와 승가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지금은 알아차림, 명상, 위파사나, 사마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인식 변화다.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 고통과 불안한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보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명상(禪冥想) 보급은 종교를 떠나 모든 이를 수행의 길로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불교 열풍에 대중이 수행 주체되는 시대
선명상·수행결사로 '수행 대중화' 안착돼
선불장 지킬 수행자 양성·지원 고민해야

고 있다. 그리고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는 비구니 스님을 비롯한 여성들이 수행의 주인공이다. 부처님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깨달음을 성취했던 여성 수행자들의 정신을 되살리는 복원 작업이자, 진지한 수행 실천의 장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공동체의 수행 결사 진행은 수행의 대중화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지한 수행 방식으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행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과 출가 사문들에게 수행은 '생사해탈'과 '깨달음'이라는 절대적 목적을 향한 치열하고도 엄중한 구도의 길이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을 위한 수행이 널리 확장되는 동시에, 붓다의 길을 걷고자 신심을 내는 진지한 수행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길을 열어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수행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인간은 본질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며, 진리와 깨달음에 대한 갈증은 더욱 뜨거워지기 마련이다. 이 뜨거운 발심이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큰 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단과 승가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수의 신심 있는 구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정진할 수 있는 전통적인 선불장(選佛場)을 지켜나가는 일은 불교의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보루가 될 것이다.

뜨거운 수행의 열풍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름을 찬탄한다. 그 가운데 마침내 중생을 제도하여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승한 수행자, 고귀한 스승의 탄생도 함께 기대한다. 기쁨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며, 모두의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영원하길 서원한다.

선거와 구분심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후보자들은 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각설이 장단에 춤을 추고 목청을 돋우며 장터를 누비고 있다. 바야흐로 선거의 마당판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인정받고 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담론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들고 다니는 '여행 가방'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장판에서 광대 노릇을 해주니 민주주의의 깃발은 참으로 그럴듯하게 보인다.

민주주의는 어떤 곳에서도 완전한 형태로 실현된 적이 없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이념이다. 그러기에 항상 논란의 파고에서 항해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담론은 대의제의 위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의제의 위기는 바로 선거의 위기로 연결된다. 선거는 선택 행위다. 선택 행위는 바로 '구분심'에서 나온다. 이를 어쩌랴. 불교에서 구분심이라는 용어는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구분심에서 탈출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필자는 구분심에서의 해방은 '지혜로운 구분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구분심은 공(空) 사상의 세속제(世俗諦)이다. 세속제는

지혜로운 구분심, 민주 시민의식의 기초
중도적 삶, 갈등 속 민주주의 나침반 돼
선거 앞두고 불교도 역할·책무 되새기길

중생이 사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방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역, 계층, 세대, 이념 등 다양한 요소로 갈등하고 분열돼 있다. 유권자의 표를 갈구하는 정치인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각종 디지털 매체 등은 미움의 구분심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민주주의 성패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바로 '보통 시민'의 민주 의식이다. 민주 시민의식의 기초는 바로 지혜로운 구분심이다. 지혜로운 구분심은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성에 바탕을 둔 자비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비 윤리는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하지 않고, 또한 타인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 독단적 판단을 삼가며 신중하게 연민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와 같은 자비 윤리는 갈등과 분열의 삶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적 인성과 생활양식은 바로 연기론적 사유에서 나온 중도적 삶과 연결된다. 이것은 갈등의 바다를 항해하는 민주주의 나침판이다.

민주주의와 불교는 매우 친화력이 높다. 붓다는 공화주의적 품격을 지닌 분이다. 민주적인 정치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붓다의 메시지는 〈유행경〉에 뚜렷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칠불쇠법(七不衰法)'이다. 선종의 전통에서 전해 내려온 심우도(尋牛圖)를 보면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도의 책무가 다시 다가온다. 심우도의 10단계 마지막 장면은 시정거리에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는 입전수수(入廛垂手)다. 이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자비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리라. 지혜로운 구분심은 팔정도의 정견(正見)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도의 역할과 책무를 다시 새겨 본다. 선거의 야단법석에서 괘불(掛佛)이 장엄하게 펼쳐지길 서원해 본다.

社 說

'마음 평안의 달' 한국불교 새 도약 계기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이 펼치고 있는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국제선명상대회는 국민적 행사로 자리매김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연등회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청년 세대와 무종교인들의 폭넓은 참여다. 실제로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방문객의 80% 이상이 MZ세대였고, 무종교인 비율도 40%를 기록했다. 국제선명상대회 역시 젊은 세대가 대거 동참하며 'AI시대의 마음 치유'라는 화두에 깊이 공감했다. 행복두배 템플스테이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폭주한 신청으로 예약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는 일시적 호기심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변화다. 치열한 경쟁과 관계 단절, 불안과 피로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청년들이 불교 안에서 쉼과 위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방증이다.

MZ세대·무종교인 참여 확산…정신문화 새 역할
연등회로 평안과 화합 메시지 '국민 치유'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열반과 해탈, 성불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평안"이라고 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단적 대립과 혐오, 경제적 불안, 전쟁 위협과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집단적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 불교가 말하는 평안은 단순한 위안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다. 끝없는 욕망과 분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수행적 가치다. '마음 평안의 달'이 시대의 아픔과 맞닿아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올해 연등회가 '평안과 화합'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더욱 의미 깊다. 북한 문헌 속 등을 재현하고 북향민들이 행렬에 참여하는 장면은, 정치와 이념으로 단절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종교와 전통문화는 여전히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평화의 염원이 남과 북, 세대와 계층, 종교와 이념의 경계를 넘어 모두를 잇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로봇 스님과 AI에 대한 불교의 태도다. 진우 스님이 강조했듯 AI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인간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전법과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불교는 결코 과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면서도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를 성찰해 온 종교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올해 연등회는 그러한 한국불교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힙한 콘텐츠와 문화적 관심이 실제 신행과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포교와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불교에 대한 호감이 일시적 소비로 끝나지 않고 삶의 가치로 자리 잡도록 전국 사찰과 교구본사, 신행단체들이 청년들과 일상적으로 호흡하며 수행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불교는 1700년 역사를 지닌 민족문화의 근간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동체를 치유할 정신적 자산을 품고 있다. '마음 평안의 달'이 불교의 새로운 도약이자 국민 통합과 치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5월 13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5월 1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5월 1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